

朝鮮後期 四天王像에 대한 考察

魯 明 信*

차 례

- | | |
|-----------------------|-----------------------|
| I. 사천왕의 개념 | V.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명칭 문제 |
| II. 사천왕의 전래와 전파 | VI.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양식적 특징 |
| III.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현상 | VII.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의의 |
| IV.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형태와 형식 | |

I. 사천왕의 개념

사천왕은 인도 신화시대로부터 護世神 또는 方位神이었다. 그러한 재래신이 불교와 結合하면서 天神의 개념으로 변화하여 欲界六欲天의 第一界인 四天王天의 주인이 된다. 세계의 중심에 높이 솟아 있는 須彌山의 中腹에 살며, 그 정상에 있는 궁전의 주재자인 帝釋天의 권속이면서 동시에 四方四洲를 수호하는 護法神으로 많은 경전¹⁾에 등장하고 있다.

四天王은 護世四洲, 護世洲, 四洲 등으로 불리워지기도 하는데, 東方의 천왕을 持國天王, 南方을 增長天王, 西方을 廣目天王, 北方을 多聞天王 또는 毗沙聞天王이라고 부른다.²⁾

東方持國천왕은 수미산의 동쪽에 살며 동방을 수호하는 천신이다. 원래의 이름은 산스크리트어로 Dhrita-rāstra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安民, 나라를 지킨다는 持國의 의미를 지닌다. 華嚴經疏 第五에는 “국토를 지키고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는 성격에 따라 이런 이름을 지은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또 금광명경에서는 선한 자에게 상을 내리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어 항상 인간을 고루 보살피

* 東國大 미술사학과 박사과정

- 1) 사천왕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경전은 여럿 있지만 그중에서도 ‘護國三部經’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金光明經』(또는 『金光明最勝王經』 4卷本 6章 四天王品), 『仁王經』, 『法華經』에서 가장 많이 說해지고 있다. 이 밖에 『灌頂經』, 『起世經』(第64 天王品), 『立世阿毘曇論』(第4 提頭賴吒城品), 『六方等大集經』(第52 提頭賴吒天王護持品), 『長阿含經』(遊行品 또는 第24 四天王品), 『增一阿含經』, 『華嚴經疏』(第5) 등에서도 사천왕에 관한 설명이 나타난다. 『陀羅尼集經』과 『一字佛頂輪王經』에서는 各尊의 형태상의 특색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 2) 사천왕의 기본개념과 성격에 관해서는 문명대교수의 논문 「新羅 四天王像의 研究」(『佛教美術』 5, 동국대학교 박물관, 1980)를 많이 참고하였다.

며 국토를 수호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천왕으로 설명되고 있다. 지국천왕의 권속으로는 乾達婆³⁾와 富單那⁴⁾가 있다.

南方增長천왕은 수미산의 남쪽에 살며 한상 염부리의 중생을 관찰하고 남방을 지키는 천신이다. 원래의 이름은 산스크리트어로 Virūdhakà로 더욱 길고 넓다는 增長 또는 增廣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즉, 중생의 이익을 더욱 길고 넓게 증장시켜준다는 뜻이다. 이 천왕은 남방천을 다스리는데, 長阿含經에는 “수미산 남쪽의 1000유순 거리에 毗勒天王의 城이 있는데 善見이라 부른다. 이 성곽은 동방천과 마찬가지로 사방 6000유순이며 7중으로 된 것으로 난간, 그물, 行樹 등도 모두 7겹이고 장식 역시 칠보로 꾸몄고 무수한 새떼가 서로 어울려 우는 것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적혀 있다. 이렇게 장엄한 국토를 지키는 것이 남방천왕의 임무이다. 남방천왕의 권속으로는 鳩槃荼⁵⁾와 薛荔多⁶⁾가 있다.

西方廣目천왕은 수미산의 서쪽에 살면서 무수한 龍을 권속으로 하며 서방을 지키는 천신이다. 산스크리트어로 Virūpaksà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醜目, 惡目, 雜語, 廣目 등의 뜻이다. 서방천왕은 시바의 化身으로 세계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⁷⁾ 세계의 눈을 가지고 널리 보고 모든 것을 아는 전능한 신으로 생각되어진 이 천왕은 그러한 눈으로 수미산의 서방국토를 바르게 지키고 중생을 이익되게 해준다고 받아들여졌다. 龍⁸⁾과 毗舍闍⁹⁾를 권속으로 거느린다.

北方多聞천왕은 수미산의 북방을 수호하고 財福富貴를 맡아 불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산스크리트어로 Vaisaravana이며 多聞, 普聞, 遍聞 등의 의미를 지닌다. 즉 많이 듣고, 널리 듣고, 두루 듣는 천왕이라는 뜻으로 비사문천왕이라고도 부른다. 法華經疏에서는 “비사문은 북방의 천왕이다. 항상 부처님의 도량을 지키고 항상 설법을 듣기 때문에 多聞이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장아함경 제24 사천왕품에서는 다문천왕이 다스린다는 북방의 국토가 상세하고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으며, “이 천왕은 3姓을 갖고 있으니 可畏, 天敬, 衆歸라 한다”라 하여 북방천왕의 성격에 대한 설명을 첨가하고 있다. 권속으로는 夜叉¹⁰⁾와 羅刹¹¹⁾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미산의 사방위를 지키는 신으로서의 사천왕은 그 신앙이 민간에까지 널리 퍼지면서 여러가지 의미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된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호법신으로

3)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향기만 맡는다는 음악의 신.

4) 臭, 또는 臭穢라고 번역되는 귀신의 일종.

5) 말머리에 사람의 몸을 하고 사람의 정기를 빨아 먹는 귀신

6) 餓鬼 또는 죽은이.

7) 문명대, 「石窟庵 佛像彫刻의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7.

8) 불법을 수호하는 신으로 받아들여진다.

9) 食血肉鬼.

10) 威德, 暴惡, 勇健이라는 뜻으로 포악성이 심한 귀신.

11) 지옥을 다스리는 귀신.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불법의 세계를 지킨다는 의미를 취하여 지배자들에게는 사천왕신앙이 호국의 염원을 담은 鎮護國家의 개념에서 받아들여졌다. 반면 민간에서는 개인의 참회멸죄를 성취시키는 신으로 받아들여져 끊임없이 신앙되어져왔다고 본다. 이렇게 하여 사천왕신앙은 호법, 호국, 僻邪를 추구하는 종교적, 국가적, 개인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본다.

이 가운데서 사천왕의 호국적인 성격은 다음과 같은 金光明最勝王經에서 가장 잘 기술되고 있다. “이 경의 설법을 듣는 모든 국왕과 인민들을 護念하여 환난을 없이 하고 모두 안온하게 할 것이며, 他方の 怨敵을 모두 퇴산케 하겠습니다. 만약 仁王이 이 경을 청강할 때 이웃나라의 원적이 四兵으로 이 나라를 침략하고자 한다면 이 경의 위신력으로서 물리칠 것이며, 이웃나라가 또 다시 다른 원한이 있어서 국경을 침범한다면 그 나라에는 온갖 재난과 질병이 유행하게 될 것이니 이에 왕이 四兵으로 적국을 토벌한다면 우리 사천왕은 마땅히 수많은 귀신들과 더불어 원적들이 스스로 물러가도록 하여 갖가지 환난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으며, 무기로 파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¹²⁾

II. 사천왕의 전래와 전파

사천왕은 인도 재래의 방위신인 약샤(Yaksa, 夜叉), 또는 약시니(Yaksini, 夜叉女)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약샤는 남성형의 수호신이며, 약시니는 여성형으로 多産과 토지의 풍요로움을 관장하는 地母神이다. 민간신앙으로서의 힌두 방위신을 불교에서는 일찍부터 사천왕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3세기에 이미 마투라의 파르카이나 퍼트나에서 거대한 약샤와 약시니상<도 1>이 제작되고 있으며, 다다르간지에서 출토된 佛子를 들고 있는 약시니상은 불교도들 사이에서 이러한 조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원전 2세기경에 조성된 바르후트탑에서부터 산치<도 2>, 간다라, 아마라바티 등에서도 탑 난간의 기둥이나 탑문의 까치발 부분<도 3>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천왕신앙은 古印度에서 출발하여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크게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큰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금광명경이 417년(玄始 6년) 인도의 曇無讖에 의해 처음으로 漢譯된 이래, 唐의 義淨이 703년에 이르러 금광명최승왕경 10권을 완역하기까지 중국에서는 이 경전이 일반에 널리 퍼지고 받아들여지면서 사천왕신앙이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도상화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¹³⁾

중국에서 토착화한 사천왕상은 인도에서 볼 수 있는 귀족풍의 온화한 형태와는 달리 甲冑를 입고 武裝하여 위엄이 충만한 무사형의 분노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사천왕상이 중앙아시아

12) 金光明最勝王經 4卷本 6章 四天王品

13) 錦織亮介, 『天部ノ佛像辭典』, 東京, 東京美術, 1983, p. 67.

아를 거쳐 중국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중앙아시아의 형식을 받아들인 결과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간다라지방의 출토품들 가운데에는 작은 작품들이지만 신장상들이 武將의 갑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되기 때문이다.¹⁴⁾

중국에서의 초기 사천왕상은 四體一組로 구성된 예는 비교적 적으며, 二天王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¹⁵⁾ 반면 중국 근세의 사천왕상은 사체일조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지물도 라마교의 영향을 받아 칼, 창 등의 병장기가 사라지고 비파, 뱀, 당, 보주 등을 지니기 시작한다.¹⁶⁾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천왕신앙이 왕성해진 시기를 적어도 6세기말경 금광명경이 전래된 이후로 보인다. ‘백제 의자왕 20년(660년)에 天王寺와 道讓寺의 탑이 진동했다’¹⁷⁾는 기록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적어도 이 시기를 전후하여 사천왕신앙이 유행하였다는 점과, 이에 근거하는 造塔 사업도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천왕신앙과 사천왕상 제작이 가장 왕성했던 것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무렵으로 보인다. 통일을 전후해서 영묘사에 천왕상이 만들어졌으며, 이어서 사천왕사가 창건되었고, 감은사 사리기 <도 4>에 정교한 사천왕상이 새겨지는 일련의 유물들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名匠이던 良志스님이 많은 불상을 만들었다고 『삼국유사』에 전하고 있고 이 가운데는 영묘사 장육존상과 천왕상도 포함되어 있다.¹⁸⁾ 『삼국유사』에는 또 양지스님이 679년 사천왕사의 五方神像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천왕사 탐지에서 발견되어 현재 경주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綠釉 신장상을 이에 대응하는 작품으로 보고 있으며, 半破된 상태에서 아랫부분만 남아 있는 이 작품이 사천왕상인지 사천왕 八部神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¹⁹⁾

14) 사천왕상이 언제부터 무장을 하게 되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사천왕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진전되어 있는 일본에서는 사천왕상이 중국에 자리잡으면서부터 무장하기 시작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명대교수는 간다라지방의 스와트박물관과 페사와르대학에서 발굴한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는 디르 박물관의 신장상들이 갑옷을 입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사천왕상이 중국으로 전해지기 전 간다라지방에서 이미 무장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15) 阮昌銳, 『門神的故事』, 金陵藝術中心, 1990.

錦織亮介, 『天部ノ佛像事典』, 東京, 東京美術, 1983, p. 61.

16) 이러한 경향은 필자가 부족하게나마 지니고 있는 자료를 통해 볼 때 중국 萬里長城의 출입문 가운데 하나인 居龍關(1342-1345년 사이에 제작)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소한 元代(1260-1367) 이후의 변화라고 본다.

17) 『三國史記』百濟本紀 第六 義慈王 二十年條.

18) 『三國遺事』卷第4 良志使錫條.

19) 문명대교수는 塔浮彫 사천왕 팔부신상으로 보고 있고 (『良志와 그의 作品論』, 『佛教美術』1, 1973. 「新羅四天王像의 研究」, 『佛教美術』5, 1980.) 강우방 교수(「四天王寺址 出土 彩釉四天王浮彫像의 復元の 考察」, 『美術資料』25, 1979)와 김원룡교수(『韓國美術史』, 범문사, 1969. 『韓國古美術의 理解』,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는 사천왕상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황수영교수는 팔부신장으로 추정하며, 勝島亥治郎도 팔부신장을 四軀씩

현재 신라시대 사천왕상은 모두 22점이 남아 있다.²⁰⁾ 불탑에 10점, 승탑에 8점, 사리기에 3점, 기타 1점 등인데 석굴암 사천왕상(도 5, 6, 7, 8)을 제외하면 모두 사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기에 제작된 사천왕상들은 삼국통일 무렵부터 크게 유행한 것들로, 모두 浮彫 내지 線刻된 조각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고려시대 사천왕상으로는 현재 석등, 부도, 탑, 사리기, 불감, 금강령 등에 부조된 몇 점이 남아 있으나 뛰어난 작품은 없으며, 경상북도 영주 부석사 조사당 사천왕벽화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된다. 부석사 조사당벽화는 우리나라에서 고분벽화를 제외하고 가장 오래된 채색그림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불교회화로서 제일 이른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회화사상 하나의 이정표를 그을 만한 대표작²¹⁾으로 손꼽을 수 있으며, 또한 이 작품은 사천왕상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부석사 사천왕상들은 대체적으로 그 기본형을 통일신라시기의 감은사 사리기 또는 도리사 사리기 등의 사천왕상 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²²⁾ 이것은 고려시대의 사천왕상이 신라시대의 그것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고려불화에서는 사천왕이 지장시왕도의 협시로 등장하고 있는²³⁾ 점에서 주목된다. 이밖에 1337(충숙왕 복위6)년에는 양산 통도사의 천왕문이 초창되었다는 기록²⁴⁾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가람배치의 형태가 평지가람에서 산지가람으로 바뀌는 시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 매우 주목되는 점이다.

고려시대의 사천왕신앙에 대해서는 약간의 기록이 남아 있어 부족하게나마 그 단면을 찾아볼 수 있다. 『高麗史』卷9에 “고려 태조 19년(936)에 광흥사, 현성사, 미륵사, 사천왕사 등을 일으켰다.”²⁵⁾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 “고려 문종 28년(1074) 가을 7월 庚子에 문두루도량을 동경 사천왕사에

二塔에 나누어 봉안했다고 보았다. 고유섭선생은 사천왕상으로 보았고, 大正11년에 간행된 『古跡調査報告書』에서도 사천왕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20) 문명대, 「新羅 四天王像의 研究」, 『佛教美術』 5, p. 18.

〈불탑〉 화엄사 四獅子塔, 화엄사 서탑, 승요곡사지 석탑, 경주박물관 1, 경주박물관 2, 황룡사 西寺址塔, 원원사 동탑, 원원사 서탑, 중흥사탑, 운문사탑.

〈승탑〉 염거화상탑, 쌍봉사 칠감선사탑, 실상사 홍보대사탑, 보림사 보조선사탑, 봉암사 지증대사탑, 실상사 수철선사탑, 연곡사 北浮屠.

〈사리기〉 감은사 사리기, 도리사 사리기, 황룡사 사리내함.

〈기타〉 사천왕사지 출토 신장상, 석굴암 사천왕상.

21) 문명대, 「浮石寺 祖師堂 壁畫試論」, 『佛教美術』 3, 1977, p. 10.

22) 문명대, 앞논문, p. 25.

23) 이동주, 『高麗佛畫』, 중앙일보사, 1989, 圖43(독일 베를린 동양미술관 소장), 圖44(일본 靜嘉堂 소장), 圖46을 보면 二段 構圖의 지장시왕도의 중앙부분에 사천왕이 좌우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이 지니고 있는 지물은 幡, 책, 창, 보탑 등으로 신라시대의 지물과 비슷하고 조선후기와는 많이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김정희, 『조선후기 지장보살화의 연구』, 정신문화연구원, 1982. p. 32

24) 『通度寺誌』.

25) “是歲創廣興現聖彌勒四天王寺等又創開泰寺於蓮山”.

설치하고 27일 蕃兵을 기도하다.”²⁶⁾라고 적혀 있다. 이 밖에도 예종3년(1108)에 여진족이 쳐들어왔을 때 毘舍門寺에 사천왕도량을 설치하였고, 고종 4년(1217)에는 宣德殿에 사천왕도량을 개설했다는 고려사의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이 사천왕신앙은 고려시대에도 면면히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외적의 침입이 많아 사회가 불안했던 때에는 국난극복을 위한 금광명도량이 자주 설치되었다.²⁷⁾

조선시대는 억불숭유정책으로 불교가 탄압을 받은 까닭으로 사천왕신앙 뿐아니라 전반적인 불교 사상이 쇠퇴하였다.²⁸⁾ 그러나 古代로부터 이 사회에 뿌리깊게 내려진 불교에 대한 신앙은 엄격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귀족의 부녀자로부터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받아들여졌다.

억불숭유정책과 임진왜란의 피해로 인하여 조선전기에 제작된 사천왕상은 남아 있는 예가 아주 적다. 그러나 임진왜란은 전국토를 초토화시킨 반면 억압되었던 불교를 되살아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임진왜란을 당하여 의승군들의 거국적인 구국활동은 정치제도권으로부터 멀어진 불교를 거둬나치게 하는 계기²⁹⁾가 되었고, 조선사회에서 다시 한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한 셈이었다.

임란 이후 불교문화의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여 수많은 사찰들이 복원 또는 중수되었다. 동시에 불에 타버리거나 왜구에 도난당해 없어진 불화가 다량으로 제작되고 사찰건축의 일부인 천왕문이 재건된다. 이 시기의 사천왕상은 주로 석가모니불화와 아미타불화에서의 外護衆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특히 아미타불화의 경우 阿彌陀九尊圖를 기본으로 하여 수많은 聽聞衆을 첨가시킨 群圖形式이 대두되는데 이 때부터 사천왕이 불화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임진왜란 이후에 중수된 각 사찰 천왕문에는 사천왕상이 조각 또는 불화의 형식으로 많이 조성되며³⁰⁾, 여기서 사천왕이 들고 있는 持物이 아미타불화에서와 같은 형식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그 연계성이 중시된다. 群圖형식의 하나로 제작된 목탱화의 경우에도 사천왕상이 등장하고 있다.³¹⁾

1587(선조20)년에는 四天王寺阿彌陀五尊像이 완성되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그 조성배경에 대

26) “庚子設文豆婁道場於東京四天王寺二十七日以禳蕃兵”.

27) 김정희, 『신장상』, 대원사, 1989, p. 31.

28) 황선명, 『朝鮮朝宗教社會史研究』, 일지사, 1987.

29) 김덕수, 「朝鮮僧軍史研究의 意義와 課題」, 『壬辰倭亂과 佛敎義僧軍』, 경서원, 1992, p. 20.

30) 천왕문 안의 사천왕상은 임진왜란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란 때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장흥 보림사(1539년 제작)와 금릉 직지사(1539년 제작)의 예가 있는데 그 圖像과 형식은 임란 이후의 것들과 거의 비슷하다. 이러한 점을 통해 조선 前期에 제작된 천왕문 안의 사천왕상이 後期로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으며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31) 문경 大乘寺(보물 제575호), 서울 慶國寺(보물 제748호), 상주 南長寺(보물 제923호, 1694년 제작), 예천 龍門寺(1663년 제작)의 목탱화가 여기에 속한다.

하여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지만 이 시기 왜구의 잦은 침범과 함께 임진왜란을 감지한 호국의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았는가하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 밖에 우리나라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일본의 경우를 보면³²⁾, 거의 대부분의 사천왕상들이 우리나라 신라시대 사천왕상과 중국 唐代의 사천왕상 도상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이 중국에 遣唐使를 9세기 이후 파견하지 않음에 따라 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왔다는 사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겠다.

Ⅲ.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현상

조선후기 사천왕상은 대부분이 천왕문에 像과 幀의 형태로 안치되어 있고 후불幀畫나 괘불에서의 성문중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번의 연구 조사에서는 주로 천왕문에 안치된 사천왕상과 幀에 중점을 두었다. 조사대상의 작품과 그 제작연대 및 소재지, 재료, 높이³³⁾는 다음과 같다.

1. 제작연대가 확실한 조선후기 사천왕상

	사찰명	제작연대	제작연대차이	소재지	재료	높이(m)
1	보림사	1539(중종 34)	—	전남 장흥	나무	373
2	직지사	임진왜란 이전	—	경북 금릉	진흙	443
3	법주사	1624(인조 2)	0년	충북 보은	진흙	600
4	송광사	1628(인조 6)	4년	전남 승주	진흙	403
5	화엄사	1632(인조 10)	4년	전남 구례	진흙	373
6	송광사	1649(인조 27) 이전	17년	전북 완주	진흙	425
7	수타사	1676(숙종 2)	44년	강원 홍천	진흙	295
8	선운사	1680(숙종 6)	4년	전북 고창	진흙	326
9	적천사	1690(숙종 16)	10년	경북 청도	나무	380
10	용문사	1702(숙종 28)	8년	경남 남해	나무	294
11	쌍계사	1704(숙종 30)	2년	경남 하동	나무	411
12	봉은사	1901(고종 37)	197년	서울 강남	나무	230

32) 猪川和子, 『四天王像』日本の美術 5, 至文堂, 東京, 昭和61.

33) 여기서 像의 높이는 당과 탑을 들고 있는 상의 경우, 다른 상들과는 달리 당의 높이가 더 추가되므로 일반적인 높이로서 보관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부터 바닥까지를 잴 치수이다.

2. 제작연대가 확실치 않은 조선 후기 사천왕상

	사찰명	제작연대	제작연대 차이	소재지	재료	높이(m)
13	칠장사	-	-	경기 안성	진흙	360
14	홍국사	-	-	전남 여천	진흙	398
15	통도사	-	-	경남 양산	나무	453
16	능가사	-	-	전남 고흥	나무	450
17	불갑사	-	-	전남 영광	나무	345

※ 평균높이 : 372

3. 조선시대 이후에 제작된 사천왕상 :

마곡사, 백양사, 낙산사, 논산 관촉사, 부석사, 불국사, 보경사, 기림사, 실상사.

4. 조선 후기 사천왕탱 :

	사찰명	제작연대	소재지	가로×세로(cm)
1	홍대박물관	1758(영조 34)	서울	120×240
2	대둔사침계루	1794(정조 18)	전남 해남	269×260
3	대둔사천불전	1794(정조 18)	전남 해남	
4	대영박물관	1796~1820	영국 런던	
5	범어사	1869(고종 6)	부산	245×335
6	동화사	1896(고종 33) ³⁴⁾	대구	177×293

5. 벽화 : 경남 양산 신흥사(17세기 후반으로 추정)

6. 목각불탱(부분) : 경북 상주 남장사, 경북 문경 대승사, 서울 경국사.

위의 도표를 통해 조선후기 四天王像은 주로 인조와 숙종대에 집중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천왕 탱은 英正祖代를 중심으로 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像의 높이는 주로 3.5~4m이며 범주사와 봉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坐像이다. 가장 큰 상은 범주사상으로 6m이며, 가장 작은 상은 봉은사상으로 2.3m이다. 인조 때 만들어진 상의 재료는 모두가 진흙이고 숙종 때에는 처음에는 진흙으로 만들어지다가 후기에 가서야 비로소 나무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점으로 보아 임란 이후의 사찰복구작업에서 나무가 얼마나 귀했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탱에 관한 조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영조 중반기에 이르러 탱이 등장하는 점이 주목되며, 거의 대부분이 사천왕 4위가 모두 단독존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반해 대둔사의 경우는 침계루<도 9>와 천불전 모두 한쪽에 2위를 함께 그려 두장의 화폭으로 제작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34) 동산문화재목록에는 1739년으로 되어 있으나 畫記에는 조선개국 후 505년으로 되어 있어 바로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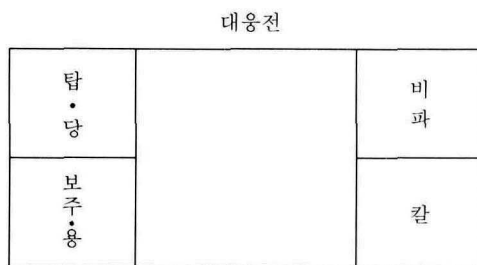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임란 이후 인조대에 제작된 사천왕상이 모두 碧巖覺性대사〈도 10〉(1575~1660)의 지휘 아래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그는 浮休善修의 수제자로서 서산, 사명에 이은 팔도도총섭의 지위에 있으면서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의승군을 모집, 향마군을 조직하여 호남의 관군과 함께 적에 대항한 의승군장이었다. 또한 남한산성의 축조를 지휘한 공으로 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의 직함을 받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임란 이후의 사찰복구에도 전력하여 화엄사〈도 11〉, 해인사, 범주사〈도 12〉, 쌍계사, 완주 송광사〈도 13〉, 승주 송광사〈도 14〉를 중수하면서 천왕문의 사천왕상 복원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었다.

또한 조선후기 사천왕상은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이 일어났던 사찰에 주로 세워진다는 점도 특기할 사항이다. 像의 경우 임란 이후에 제작된 15곳의 사천왕상 중 의승군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파악되는 사찰³⁵⁾은 모두 9곳이며, 의승군과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사찰이 3곳, 그리고 관련성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곳이 3곳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제작은 승군의 역할 또는 호국의 개념과 연관하여 파악되어야 할 필요성이 많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조선후기의 천왕문과 사천왕상은 단지 사찰구조상의 한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호국호법의 염원이 담긴 중요한 건축물 또는 조형물로서의 의미를 다분히 지니고 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조선후기 사천왕상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벽암각성과 의승군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IV. 형태와 형식

천왕문에 안치된 조선후기 사천왕상은 대체로 일정한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다. 대웅전을 향하여 들어가면서 입구로부터 오른쪽에 칼을 잡고 있는 천왕과 다음으로 비파를 들고 있는 천왕이 있으며, 왼쪽으로는 용과 보주를 오른손과 왼손에 잡고 있는 천왕과 당과 탑을 들고 있는 천왕을 볼 수 있다.



천왕문 입구

35) 양은용 김덕수편, 『壬辰倭亂과 佛敎義僧軍』 경서원, 1992.

像의 경우 대부분이 좌상이지만 범주사와 봉은사의 경우만이 입상이며 탕의 경우는 모두 입상이다. 양쪽의 천왕상 앞에 높은 木柵을 치고 있고 화려하게 단청으로 채색되어 있으나 먼지가 가득 쌓여 있으며, 소조의 경우에는 像 자체가 벌집으로 변해있는 경우가 많다.

조선후기의 사천왕상은 중국 元明清代式의 갑옷을 입고 있으며³⁶⁾, 4위가 각각 비파, 칼, 용과 보주, 당과 탑 등의 서로 다른 持物을 손에 지니고, 대부분의 경우 양쪽 발 밑에 악귀를 하나씩 밟고서 위협적인 얼굴표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형태상의 특징을 지닌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무장상 위에 보살의 이미지인 화려한 보관, 휘날리는 천의, 귀를 감싸고 돌아 어깨 위로 흘러내리는 머리카락 등을 첨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그림 1>.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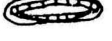











































36) 혹은 북송대까지 소급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 산서성 태원시의 晉祠에 있는 분노한 형상의 무인상들을 보면 원 명청대의 갑옷과 같은 형식의 갑옷을 입고 있다. 이 像에는 北宋 紹聖4년(1097)이라는 문귀가 새겨져 있다. 『중국불교의 여로』 상권, p. 84 참조.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형식을 형태상의 특징으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얼굴 ;얼굴 중에서도 특히 눈과 입은 각각의 천왕이 지니고 있는 지물의 성격과 깊은 관련을 갖고 특징지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비파를 들고 있는 천왕은 입을 살짝 벌려 윗니 두개만이 드러나고 있고 칼을 들고 있는 천왕은 윗니가 모두 길게 드러나면서 악다물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용과 보주를 들고 있는 천왕은 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을 시옷자로 꼭 다물고 있고, 당과 탑을 들고 있는 천왕은 아래 윗니가 모두 드러나도록 입을 벌리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어느 천왕이나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눈을 가장 위협적으로 크게 뜨고 있는 천왕은 칼과 용 보주를 들고 있는 천왕이며 비파를 들고 있는 천왕은 본존불처럼 비스듬히 내리깔고 있는 인자한 표정을 지니고 있다(그림 2).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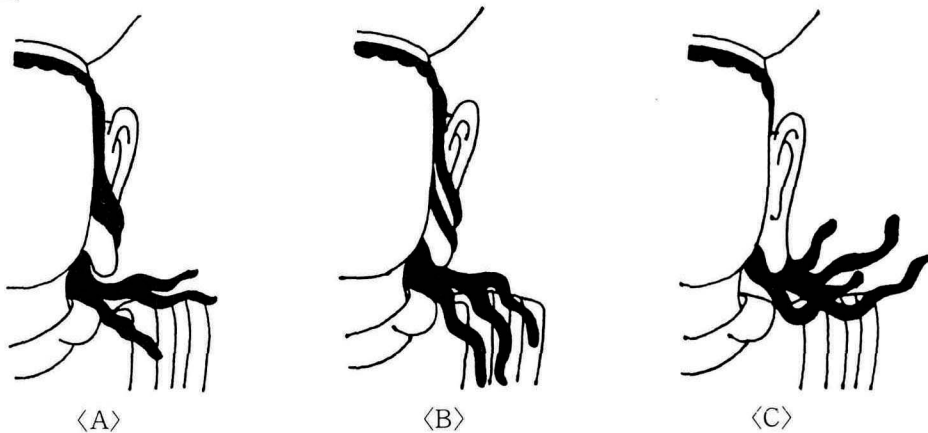
		비파	칼	용, 보주	당, 탑	눈 모양
1	보림사					
2	직지사					
3	완주 송광사					
4	범주사					
5	승주 송광사					
6	화엄사					
7	선운사					
8	적천사					
9	용문사					
10	쌍계사					

		비파	칼	용, 보주	당, 탑	눈 모양
11	통도사					
12	홍국사					
13	능가사					
14	불갑사					

② 보관 ; 위협적인 무장상 위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보살의 이미지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남성형의 약시의 형태 위에 여성형의 약시니의 상징을 결합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범주사像처럼 북방족의 털투구를 쓰고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귀를 싸고 돌아내려오는 머리카락은 그 표현방법이 고려불화나 조선불화에 등장하는 보살상의 모습과 거의 같다는 점이 주목된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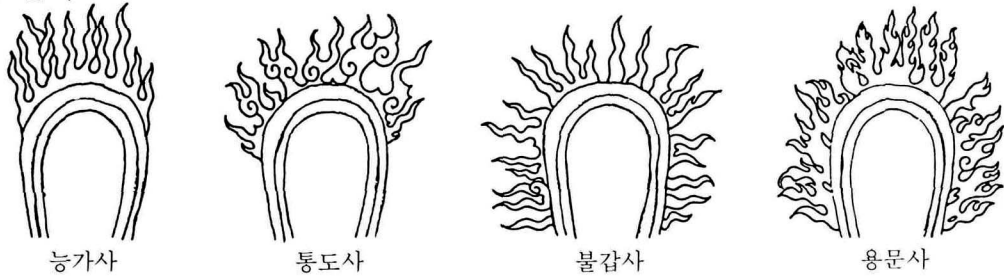
<그림 3>



③ 천의와 화염 ; 모든 사천왕은 천의를 걸치고 있다. 하나의 긴 천을 비천과 같이 어깨 위로 둥글게 돌려 양쪽 아래로 흘러내려 땅바닥까지 닿고 있고, 머리 뒤쪽으로 돌아간 천의 위로 붉은 화염이 치솟아오르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두광을 대신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의 사천왕상의 특이한 형식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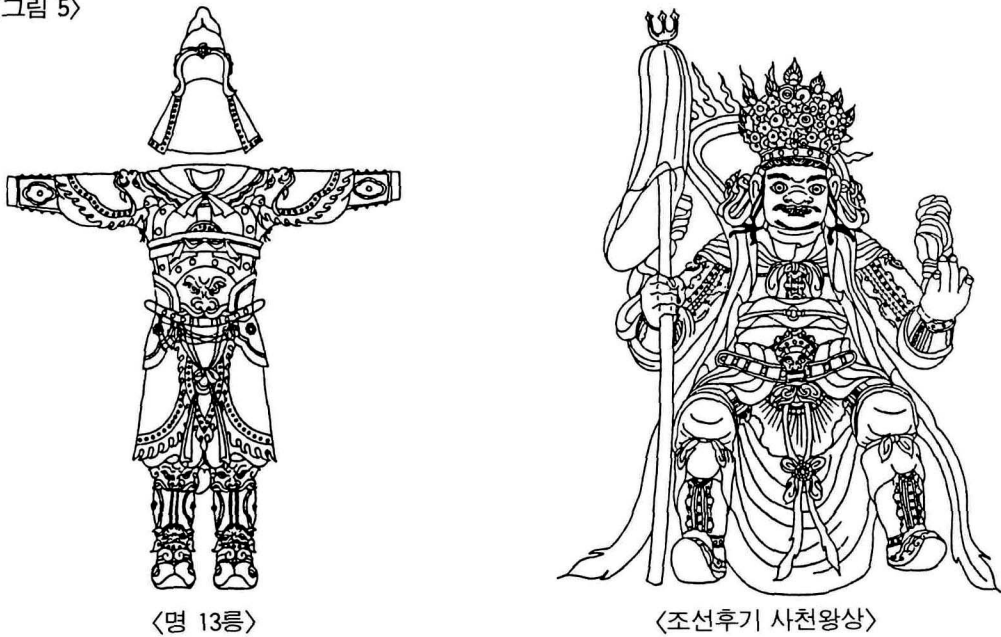
화염이 없는 경우는 2곳에 불과하며 그 형태는 4가지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그림 4>.

〈그림 4〉



④ 옷 ; 사천왕은 평상복 위에 갑옷을 입고 그 위에 다시 갑옷을 고정시키거나 장식하는 부속물을 지닌다. 평상복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은 팔목소매가 팔꿈치까지 길어 올라가 치솟아 바람에 휘날리는 모양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둔황에서부터 사천왕의 의습을 특징지우는 공통점으로 보인다. 팔뚝갑옷(龍手)에서 나온 소매의 끝부분이 꽃잎처럼 살짝 反轉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은 조선후기 불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같아 흥미롭다. 갑옷은 최소한 明代의 갑옷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明十三陵의 형식과 거의 같다(그림 5).

〈그림 5〉



⑤ 지물 ; 사천왕이 손에 지니고 있는 지물은 각각의 상징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비파(도 15)는 일찌기 신라시대의 비천상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오래된 지물이다. 비파는 원래 인도와 서역의 악기로 불교에 들어서서 불보살의 공양구와 지물이 되었고 이후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서기 2세기경부터 아마라바티탑 欄楯浮彫白象牙降下圖(캘커타박물관 소장)등의 조각에서 보이기 시작하며, 밀교경전 『存勝佛頂修瑜伽法儀軌』(卷下)에서는 持國天의 지물로 규정

하고 있다.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비파는 대개 4현으로 되어 있으며 왼손으로 비파를 잡고 오른손으로 연주하는 자세를 취한다. 비파에는 4弦과 5弦이 있는데 4현은 페르시아의 파르파트가 漢代에 중국으로 전파된 것이며 5현은 인도에서 남북조시대에 중국으로 전파된 것이다.³⁷⁾ 비파는 부처님의 자비를 음악과 같은 아름다운 소리로 사바세계에 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칼<도 16>은 무장상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사악한 것들을 단호히 제거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왼손은 허리에 대고 있거나 손가락을 칼끝에 살짝 올려 놓는다. 신라와 고려 시대의 사천왕상은 칼이나 활, 창 등의 무기류를 주로 들지만 조선후기에 와서는 하나의 像에서만 들게 된다.

龍<도 17>은 오른손에 잡고 寶珠<도 18>는 왼손에 잡는다. 용은 보통 불법을 수호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래 인도에 사는 龍種族들이 뱀을 숭배하는 신화에서 비롯된 것이다.³⁸⁾ 보주는 여의주라고도 하며 부처님의 사리가 불법이 멸할 때에 모두 구슬로 변하여 중생을 이롭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가지 욕구하는 바를 성취시킨다고도 전해진다. 혹은 제석천왕이 가진 금강저로 아수라와 싸울 때 부서져서 南蟾浮洲에 떨어진 것이 변하여 이 구슬이 되었다고도 한다.³⁹⁾

幢<도 19>은 오른손에 塔은 왼손에 받들고 있는 것이 원칙이며, 당은 불보살의 위신을 표시하는 장엄구로서 중생을 지휘하고 魔軍을 굴복시키는 標識이기도 하다. 당은 원래 왕자가 전쟁할 때 그 위용을 나타내기 위한 군기로서 사용되었으나 불교에 유입되어져 불보살의 장엄으로 이용하게 되었다.⁴⁰⁾ 塔<도 20>은 불법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서 조선후기 사천왕상에서는 3층탑과 5층탑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많고 때로는 승탑의 형태를 취하거나 仰蓮 위에 보탑을 올려놓은 모습도 등장한다. 드물게 왼손에 보탑을 들지 않고 허리에 대고 있는 경우도 있다.

⑥ 다리의 자세와 악귀 ; 사천왕이 취하는 다리의 자세는 사천왕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전과 중국의 元代 이전, 그리고 일본 全時期의 사천왕상은 거의 대부분이 立像으로 발 밑에 악귀 하나를 밟고 있는 반면 조선후기의 사천왕상과 중국 元明清代 사천왕상은 많은 경우가 좌상으로 양쪽 발 밑에 각기 하나씩의 악귀를 지닌다. 이 경우 한쪽 다리는 수직으로 내려 인간세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도 21>의 허리 또는 등을 밟고 있으며, 다른 한쪽의 다리는 仁王과 비슷한 모습의 비현실적으로 표현된 인물<도 22>에 의해 45도 각도 정도 비스듬히 들려져 있다. 그런데 원명청대의 사천왕상은 일정한 규칙에 의한 다리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반면 조선후기의 사천왕상은 약간의 변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악귀는 生靈座에 속하는 것으로 鬼王 또는 邪鬼⁴¹⁾라고도 한다. 여래와 보살은 생령좌를 하지 않

37) 塚本善隆, 『望月佛教大辭典』, 世界聖典刊行會, 東京, 1936.

38) 운허, 용하 지, 『佛教辭典』, 동국역경원, 1991.

39) 앞책.

40) 임영애, 「古代佛教幡의 樣式變遷考察」, 『美術史學研究』 189, 1991, p. 10.

41) 猪川和者, 『四天王像』, 日本の美術 5, 至文堂, 東京, p. 99.

으며 호법신에 속하는 諸尊만이 生靈座를 취한다.⁴²⁾ 생령은 야차와 나찰, 그리고 질병과 마음의 악함을 상징하는 屍身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고 파악되기도 한다. 숙종대 이후에 제작된 사천왕상이 거느리고 있는 악귀의 경우를 보면 민간인의 모습을 한 예가 많아 흥미롭다. 특히 그 인물묘사에 있어서 官帽를 쓰고 있는 관리〈도 23〉라든지, 淫女를 상징하는듯이 보이는 여자〈도 24〉 등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이 시기에 대두되는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사회현상과 관련하여 권선징악적이고 사회비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V. 명칭 문제

그런데 조선후기 사천왕상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명칭(또는 尊名)에 있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동일한 지물을 들고 있는 사천왕을 부르는 명칭이 경우에 따라 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조선후기의 불화계열과 조각계열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천왕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신라시대 이후로 사천왕상은 그가 지니고 있는 지물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고 있으며 대체로 그 방법이 통일되어 있는 편이다.⁴³⁾ 동, 남, 서방천왕은 칼, 창, 금강저, 화살 등의 무기를 지니고 있고 북방천왕의 경우는 반드시 탑을 받든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조선후기 사천왕상은 신라나 고려시대와는 달리 라마교의 영향을 받아 지물이 크게 변화한다. 이것은 아마도 藥師七佛儀軌供養法の 영향을 받은 때문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 탑이라는 동일한 지물을 들고 있는 사천왕에 대해 불화계열에서는 서방천왕으로, 조각계열에서는 북방천왕으로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불화의 경우는 천은사 아미타후불탱화(1776)〈도 25〉에서 탑을 든 사천왕을 서방천왕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많은 사천왕탱화들이 이와 같은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천왕문에 안치된 조각의 경우는 천왕문 안에 각 천왕상 앞에 이름표를 달아놓거나 寺誌에 기록된 바에 의하여 북방천왕이 탑을 들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그림과 조각의 도상이 각 계열간에 각기 다른 전통으로 이어져왔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현재 조선후기 사천왕상과 관련되어 명칭이 각기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도표로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錦織亮介, 『天部の佛像事典』, p. 66.

42) 逸見梅榮, 『佛像の形式』, p. 191.

43) 문명대, 「新羅四天王像의 研究」, 『佛教美術』 5, p. 44.

<불화계열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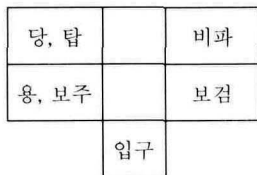
	동방천왕	남방천왕	서방천왕	북방천왕
천은사 아미타후불탱화	칼	용, 보주	당, 탑	비파
朝鮮後期 사천왕幀	칼	용, 보주	당, 탑	비파
『석굴암불상조각의 연구』 ⁴⁴⁾	칼	용, 보주	당, 탑	비파

<조각계열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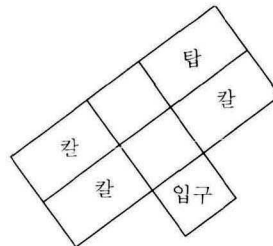
	동방천왕	방천왕	서방천왕	북방천왕
승주 송광사지	비파	칼	용, 보주	당, 탑
약사칠불의괘공양법	비파	칼	용, 보주	당, 탑
중국明代 居庸關, 옹화궁	비파	칼	용, 보주	당, 탑
중국承德 明清代 사찰들	비파	칼	용, 보주	당, 탑
중국承德 나한당	당	칼	용, 보주	비파
조선후기 사천왕조각	비파	칼	용, 보주	당, 탑
『중국라마교미술대관』 ⁴⁵⁾	비파	칼	탑, 용	당, 쥐

위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로 두가지의 방식으로 사천왕상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천왕상의 명칭은 지물과 관련하여 파악해볼 수도 있지만, 그 배치방법에 따라서 분석해볼 수도 있다. 즉 천왕문에 들어서서 오른쪽 안쪽에 있는 像이 북방인가 동방인가하는 점에 따라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명칭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석굴암의 경우는 들어가면서 오른쪽 안쪽에 있는 상이 보탑을 받치고 있는 북방천왕이다. 그러나 석굴암은 동남향을 취하고 있으므로 북방천왕은 실제 바위인 북쪽에 배치된 셈이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사찰은 북동측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들어가면서 오른쪽 안쪽의 천왕상 명칭이 석굴암의 경우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조선후기 사천왕상>



<석굴암 사천왕상>

44) 문명대, 「石窟庵 佛像彫刻의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7.

45) 逸見梅榮, 東京美術, 昭和 56(1975).

사천왕상의 명칭을 지물에 의거해 결정할 것인가, 혹은 배치방법에 따라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보다 깊은 연구가 진행된 이후에 결정되어질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북방천왕이 보탑을 들고 있다는 일반적인 공통점에 의거해 볼 때 조선후기의 사천왕상의 명칭은 불화의 경우보다는 조각의 경우가 더욱 타당하다는 잠정적인 판단을 해볼 수 있을 뿐이다.

VI. 양식적 특성

조선후기 사천왕상은 무엇보다도 그 형태면에서 以前 時期와의 큰 차이점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중국이나 일본과의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가장 뚜렷한 형태상의 특징은 자세와 지물에서 드러난다. 자세는 입상과 좌상으로 분류되며, 지물은 편의상 ‘다라니형’과 ‘약사칠불형’이라는 이름을 붙여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자세면에서 조선후기 이전 시기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천왕상이 입상인데 비해 조선후기의 사천왕상의 경우 조각은 2사찰을 제외하고 모두 좌상이며 그림은 모두 입상이다. 중국의 경우는 수, 당 시대의 경우는 거의 입상인 반면 시대가 내려가 원대에 이르면 좌상으로 변화한다. 일본의 사천왕상은 모두가 입상으로 중국의 수, 당 시대와 우리나라 신라, 고려시대의 도상과 동일한 형식을 취한다.

지물을 살펴보면, 조선후기 이전시기에는 신라와 고려시대 모두 창, 칼 등의 무기류와 보탑을 드는 ‘다라니형’을 지니는 반면, 조선후기에 이르면 비파, 칼, 용, 보주, 당 등의 ‘약사칠불형’을 지닌다. 중국은 수, 당에서는 다라니형이 나타나며 원대 이후에는 약사칠불형이 나타난다. 일본은 다라니형 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도표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세		지물	
	입상	좌상	다라니형	약사칠불형
한	신라, 고려	조선 후기	신라, 고려	조선 후기
중	수, 당	원, 명, 청	수, 당	원, 명, 청
일	全時期		全時期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후기의 사천왕상은 중국의 사천왕상과의 밀접한 연관을 지니면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에 영향을 미친 것은 신라시대에 그쳤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제작된 우리나라의 사천왕상은 이 땅에 토착화하면서 중국과는 조금씩 다른 특성을 지니기 시작한다. 특히 조선후기의 사천왕상은 조각의 경우를 보면 마치 백자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두툼하고 투박한 질감 위에 화려한 단청을 칠하여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사천왕상보다

사천왕의 강렬한 성격을 돋보이게 표현해내고 있다.

한편 제작시기에 관해 살펴볼 때 조선후기의 사천왕상은 인조대, 숙종대, 영정조대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각 왕조에 만들어진 작품들 사이에서 제작기법은 물론, 재료와 장르 면에서 뚜렷한 양식상의 차이점이 나타난다. 즉 인조대와 숙종대에는 조각으로만 사천왕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반해 영정조대에는 그림만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그리고 조각에서도 인조대에는 소조사천왕이, 숙종대에는 전반기에는 소조가 후반기에는 목조가 만들어진다는 뚜렷한 구분점이 드러나고 있다.

인조대에 만들어지는 사천왕상은 모두 벽암각성대사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시기의 작품들은 조선후기 사천왕상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작품성을 지니고 있다. 어느 시대의 작품들보다도 신체의 균형이 안정감이 있으며 규모가 큰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섬세한 부분까지 정성을 다해 빚고 있다. 눈동자와 얼굴의 주름살 표현은 압권에 속한다 할 정도이며 옷주름이나 신발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다하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숙종대의 사천왕상은 인조대의 것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섬세한 묘사의 생략화가 진행되며 신체의 균형도 깨어지기 시작한다. 얼굴의 굴곡이 사라지고 밋밋한 정도로 표현되는데 그칠 뿐아니라 팔과 손이 굵어져서 살아있는 인간이라기보다는 마치 인형이나 로봇같다는 느낌을 준다. 이러한 경향은 인조대의 우수한 장인들이 이미 타계하고 그 제자들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사실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재료도 진흙에서 나무로 바뀌어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영정조대에는 사천왕상이 조각은 전혀 제작되지 않고 탕만이 만들어지는 점이 주목된다. 이 시기에는 후불탱화에서도 사천왕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점에서 어떤 연관성이 감지되지만 아직 연구가 미진하여 다음 기회로 미룬다.

Ⅶ.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의의

신라시대 이후로 호국호법의 이념 아래 사천왕상신앙은 지속적으로 수용되었고 조상활동도 면면이 이어져 왔다. 사천왕신앙은 邪惡한 것으로부터 신성한 것을 보호하고 침략자로부터의 위협에 대항하며 인간세상의 고통스러움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어져 왔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배자들의 호국이라는 통치이념과 일치되었고, 종교적으로는 호법의 개념에서 사찰의 수호신으로서 받아들여졌으며, 민간에서는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僻邪의 개념으로 끊이지 않고 그 신앙의 형태가 선호되어 왔다고 본다.

조선초기에는 억불숭유정책으로 인하여 불교의 신앙이 큰 위협을 받음에 따라 造像활동은 강력히 규제당했다.⁴⁶⁾는 점에서 자연히 국가적인 차원의 사천왕신앙은 받들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

46) 문명대, 「朝鮮朝 불화의 양식적 특징과 변천」 『朝鮮佛畫』, 중앙일보사, 1989, p. 173.

된다. 그런데 1592년 임진왜란을 당하여 불교계에서 의승군들이 전쟁에 적극 참여한 결과 불교는 다시 조선사회에 자리잡게 되었다. 前後 복구사업에서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대부분의 사찰이 재건 되는데 이때 천왕문 안의 사천왕상들이 대부분 제작되고 있다.

이것은 통일신라시기에 사천왕사를 건립하여 唐의 위협을 물리치고자 했던 사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국난을 당할 때마다 수많은 도량을 사천왕사나 비사문사에서 실시했던 사실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호국의 염원이었다고 생각한다.

조선후기 사천왕상은 무엇보다도 임진왜란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며 특히 승군이 활약했던 사찰에 많이 세워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작연대가 뚜렷한 11곳의 사천왕상 중의 대부분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서 활약한 팔도도총섭 벽암대사와 관련이 있거나 승군의 본거지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제작연대가 확실치는 않아도 이러한 연관 속에서 제작되었음이 확인된 사천왕상도 3곳 중 2곳에 해당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조선후기 사천왕상이 지니고 있는 호국호범, 그리고 制世적인 성격과 맥을 같이 하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사천왕신앙이 지속적인 억불정책에도 불구하고 면면히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불교가 지니고 있는 국가적, 민족적 의미는 소위 護國三部經이라고 일컬어지는 범화경, 금광명경, 인왕반야경 등에서 그 사상적 의미가 나타나고 있다. 대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佛法은 국가 민족의 복리를 기원하는 교법으로서 기도의 공덕으로 국가를 위호하는 것이며 만약에 국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지성을 다하여 국가안전을 기원하며 官兵의 능력으로 당하지 못할 때에는 호국의 의무행위로서 총칼을 메고 총궐기한다.”는 내용으로서 호국사상이 짙게 깔려 있다.⁴⁷⁾ 이것은 조선후기 불교의 호국사상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 사상적인 배경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제작되는 사천왕상들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사회적 종교적 배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조선후기 사천왕상은 그것이 매우 위협감을 조장하는 그로테스크한 형상을 취하면서 장육존상 크기에 버금갈 만한 거대한 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그리고 재료의 선택에 있어서 나무와 진흙으로 제한시키고 있다는 사실에서 미술사적인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조선후기의 사천왕상은 분노상의 형태를 통해 천왕문을 통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협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사찰을 보호하는 수호신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는 동시에 천왕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僻邪의 의미를 부여하는 통과 의례로서의 기능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門神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는 조형성이라고 보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선후기 사천왕상은 그 크기가 매우 장대하다는 점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을 지닌다. 크기는 법주사의 높이 6m에서부터 작계는 화엄사의 373m에 이르기까지 큰 규모로 제작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47) 禹貞相, 「李朝佛敎의 護國思想에 對하여」 『白性郁博士 頌壽記念佛敎學論文集』, 동국대학교, 1959, p. 569.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거대한 규모의 불교조각은 현재 마애불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유례가 없는 현상인데, 이것은 당시 불교계의 호국호법에 대한 열망을 그 크기로서 나타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또 다른 특징은 그 재료를 진흙과 나무에 국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대체로 본존불의 경우는 돌이나 금동을 그 소재로 하고 있고 보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소재들이 거대한 규모의 사천왕상을 제작하기에는 부적당하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神格의 계급에 따른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겠다. 한국 조각사에서 보아 이보다 큰 규모의 소조상이나 목조상이 드물다는 점은 이들 조선후기 사천왕상들이 지니고 있는 의의를 한층 더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는 서양문화와 서양종교의 홍수 속에 살면서 사찰 안의 사천왕상을 마귀 같은 형상, 혹은 단순한 문지기의 역할로서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분노상을 하고 있는 사천왕사의 조형성에 접했을 때 우리는 섬찟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경험한다. 이것은 인간심성의 가장 깊은 곳에 내재하고 있는 죄의식을 불러일으켜 각성케 하고 있는 결과라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사천왕상은 인간이 빚어낸 가장 力強한 조각작품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며, 그 강렬한 의미를 표출하는 작품성에서 보아도 세계적인 작품들에 比肩될 수 있을 만한 성공적인 예술품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조선후기 사천왕상은 임진왜란과 같은 엄청난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 선조의 열망이 가득 담긴 호국호법의 개념에서 인식되어야 하는 동시에 인간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感知케 하는 훌륭한 예술작품으로서 재인식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 1〉 佛子를 든 약시니,
B.C. 3세기, 퍼트나 박물관



〈도 2〉 약시니, 산치 제1탑 동문, 1세기경



〈도 3〉 야크샤 간기타, B.C. 2세기, 인도 박물관

〈도 4〉 감은사 사리기 사천왕상





<도 5> 석굴암
동방지국천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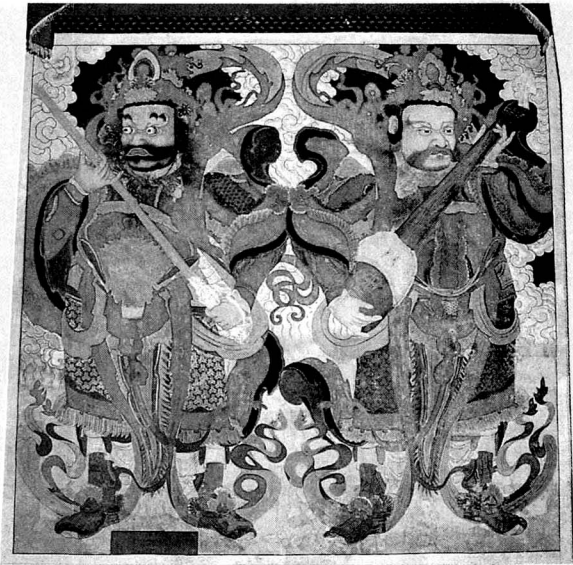
<도 6> 석굴암
남방증장천왕



<도 7> 석굴암
서방광목천왕



<도 8> 석굴암
북방다문천왕



〈도 9〉 대둔사 침계루 사천왕탱



〈도 10〉 벽암각성대사 영정



〈도 11〉 화엄사 사천왕상



〈도 12〉 법주사 사천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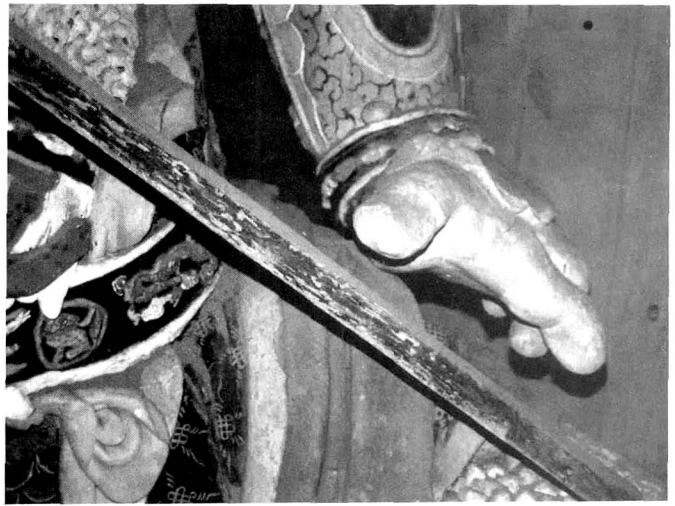
〈도 13〉 완주 송광사 사천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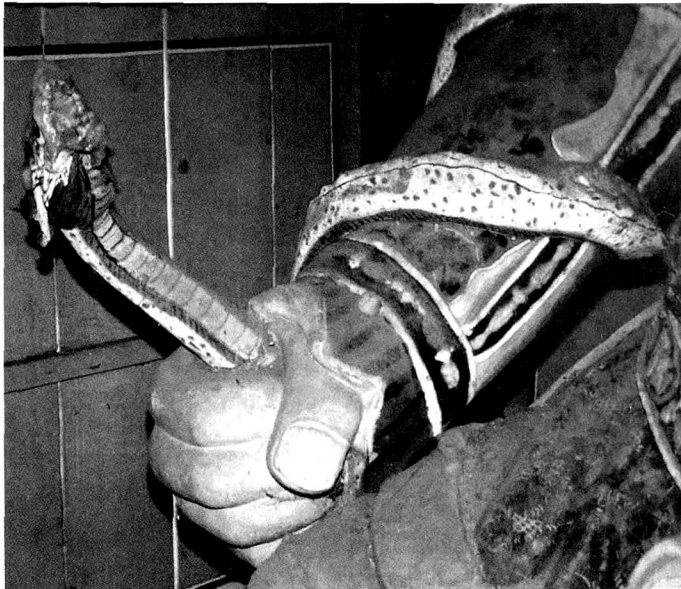
〈도 14〉 승주 송광사 사천왕상



〈도 15〉 지물 비파



〈도 16〉 지물 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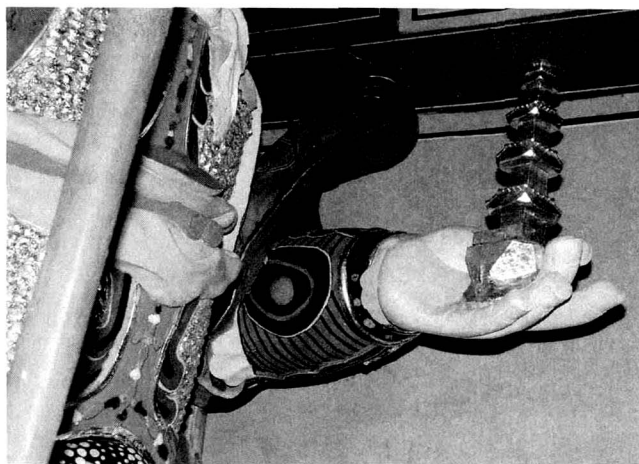
〈도 17〉 지물 용



〈도 18〉 지물 보주



<도 19> 지물幢



<도 20> 지물 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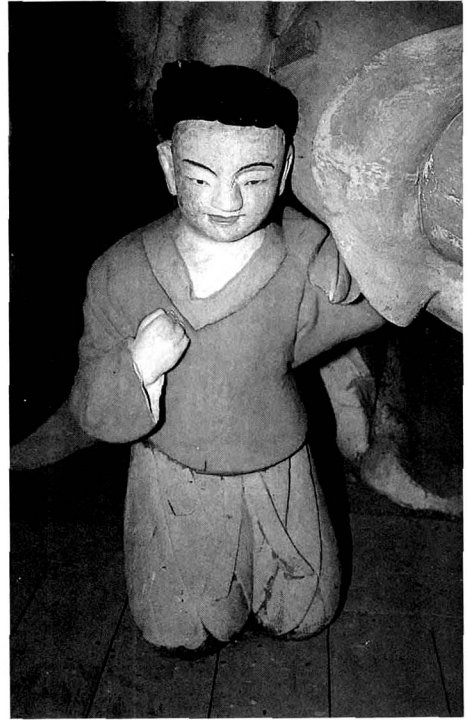
<도 21> 악귀 직지사



<도 22> 악귀 승주송광사



<도 23> 악귀 용문사



<도 24> 악귀 능가사



<도 25> 천은사 아미타 후불 탕화 1776년